

주간 증시 포커스

2분기 어닝시즌 2400선 안착 시도

삼성전자 실적발표 관심 집중

IT·은행·증권·철강업종 주목

29일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2,400포인트를 돌파했다.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9조원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 영향으로 18% 상승하며 주요국 지수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첫 2400선에 이른 상황에서 하반기 투자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몇 개월 전에 주간증시전망에서 모임에서 좋은 종목을 물어보는 지인의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코스피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오르지 않은 숨은 진주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첫째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IT 업종이다. 한국의 IT기업은 늘 저평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내 IT기업은 업종 사이클이 크게 나타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도입한 후발기업으로 양산체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전략이었다.

두번째는 신정부정책관련주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과정 없이 출범하여 아직 내각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는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큰정부를 지향하며 경제민주화와 삶의 질 향상(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평균 대비 국내기업의 배당성향과 자사주 소각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주주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초기에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높다.

이번주 코스피지수는 2,400선 안착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코스피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7월 발표되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반응이 단기적인 코스피지수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시장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관련주와 상승흐름으로 전환된 기업에 대한 접근이 좋아 보인다.

필자가 수차례 언급했듯이 새로운 진주를 찾기 보다는 시장주도주를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전남어촌특화센터, 귀어귀촌 희망자 기술·창업교육

귀어·귀촌 박람회서 부스 운영

도시민 유치 홍보·마케팅 검토

전남도 해수부장관 감사장 받아

전남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완도군·장흥군·강진군·고흥군·신안군 등이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어·귀촌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귀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취업 기술·창업교육,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도시민 유치와 지역공동체와의 조율, 지자체가 수산정책자금이나 주거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귀어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하며, 부스에 각 지자체, 기관의 귀어귀촌 지원 대책 및 사례 등을 설명하며 귀어귀촌 희망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 지자체와 기관들은 향후 도시민의 귀어·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협력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과 지난해 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조만간 귀어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창업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흥군의 '청년 귀어가 어장' 등 지자체의 실시하는 독특한 대책에 대해서도 홍보할 방침이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부스를 찾은 서울 거주 오지원(여·45)씨는 "남편과 함께 귀어해서 김 양식을 해보고 싶어 박람회를 찾았다"며 "센터의 안내를 받고 올 하반기 실시하는 창업교육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귀어귀촌 정책에 기



여한 공로로 전남도를 대표해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임광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도시민과 지자체,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와의 사이에서 조율하고 조정

하는 역할을 맡겠다"며 "이를 통해 도시민의 어촌 연착륙을 돕고, 지역공동체가 우려하고 있는 외지인 정착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사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전남어촌특화센터 협력업체 아라움 '취리포 세트' 출시

홍쇼핑서 1억2000만원어치 팔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업체인 여수 소재 (주)아라움이 지난달 28일 한 홍쇼핑에 '대왕취리포 세트(사진)'를 출시했다.

2일 (주)아라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10시 10분부터 50분까지 40분 방송만에 전체 물량을 모두 팔아 1억2000만원어치 팔아 목표치의 120%를 달성했다.

5개씩 포장한 7개 봉지로 구성된 이번 세트는 (주)아라움이 철저한 위생 관리와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운 전라상품이다.

(주)아라움은 지난 2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해남 송호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등과 함께 OEM(주문자표부착) 공동협약을 체결해 현재 말린 전복과 피조개를 소재로 가공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김미선 (주)아라움 대표는 "전남의 수산물을



재료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홍쇼핑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해 기업과 어촌이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어촌특화센터, 진도·제주도 전복업체 현장 클리닉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과는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 진도군과 제주도 전복종자업체 4곳을 찾아 현장 클리닉에 나섰다.

27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과에 따르면 노환성 팀장, 선승천·정병길 연구사, 김도기 자문위원, 한석중 한국연구재단 이학박사 등 전복연구팀이 지난 20일 진도군 대대수산, 전일수산, 제주도 동원영어조합법인, 한라전복 등을 찾았다.

이들은 전복종자업체 애로사항을 진단하

고 기술지도 및 컨설팅에 나섰다. 기술분야에서는 사양관리 및 양식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기타분야에서는 수산종자업체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각각 지원했다.

연구팀은 업체 내 양식장의 해수 분석을 (주)연안관리기술연구소, 경영분석을 (주)정앤사에 각각 의뢰했으며, 폐사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해 선정 어가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자문해줄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3.0% 추가 우대금리 '행복이음패키지' 캠페인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행복이음패키지' 출시에 따라 지역민과 함께 '행복이음패키지' 가입 캠페인(사진)을 실시한다.

행복이음패키지는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동행을 테마로 하여 농협이 판매금액에 비례해 아름다운 동행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 고객에게 최대 3.0%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농가소득 증대 기여 상품이다.

행복이음패키지는 임출식, 거저식, 적립식(2종) 등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다.

농협은 더 많은 고객들이 농촌생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이음패키지의 출시를 기념한 푸

진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박태선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은 "행복이음패키지 상품 가입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도농상생에 동참할 수 있다"며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으로 도시·농촌간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시민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Features large text '방수' and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Includes contact info for Chilman CMTECH in Gwangju and Jeonnam.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Title: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 Jeju,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Title: '태성공인중개사'.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